

2013년 12월 31일

내각총리대신

종교법인 일본홀리네스교단

교단위원장 나카니시마사히로

복음에 의한 화해위원회 위원장 히라노 신지

##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항의성명

제2차 아베내각 발족으로부터 일년을 맞이한 12월26일, 당신은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였습니다. 우리는 그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합니다.

내각총리대신으로 야스쿠니에 참배하는 것은 「국가 및 그 기관은 . . .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된다」고 정한 일본국 헌법 제20조에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. 우리 일본홀리네스교단은 제2차세계대전 중에 국가신도체제에 의하여 압박을 받은 기독교의 종교법인으로서 결코 이 행위를 용인할 수 없습니다. 또한 일본의 수상인 당신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「근본적으로 중국이나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생각은 일체 없습니다」라고 기자단에 대답한 발언에 반하여, 일본이 범한 침략전쟁으로 인하여 큰 아픔을 지닌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.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「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에 의해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없는 시대를 만들 것에 대한 결의」가 진심이라면, 지나간 시대의 전쟁의 참화에 의하여 고통받은 모든 나라 사람들의 상처를 더욱 깊게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

당신은 일본의 수상이나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중국이나 한국으로부터의 비판을 「오해에 의거한 것」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만, 그 인식이야말로 오해이며, 역사에 대한 몰이해를 폭로한 것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. 천황을 위한 싸움에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을 「영령」으로 모신 야스쿠니신사는 전쟁전에 있어서 국가신도의 중핵이었고, 침략전쟁 수행에 국민을 몰아붙인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. 지금 다시 한 번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국민을 미화하는 행위는 특정비밀보호법의 가결을 강행하고,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며, 무기수출 삼원칙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,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향하여 헌법을 「개정」하기 위하여 돌입하는 귀 정권의 자세와 겹쳐져서 「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맹세」에 역행하는 것입니다. 야스쿠니신사는 단지 A급 전범을 모신 것 이상으로 평화와, 전쟁을 하지 않는 바람을 맡기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시설인 것입니다.

전쟁에서 귀중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두 번 다시 비참한 전쟁을 일으키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존중한다면, 중국과 한국을 위시한 주변의 나라들이 일본에 의한 지배와 전쟁으로 지게된 상처를 마음에 새기고, 그 전쟁책임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과 사죄의 정신에 서서, 화해와 평화를 기조로 한 외교노력에 매진하는 것이야말로 일본국의 총리대신으로서의 당신의 임무라고 하는 것을 사료깊게 자각해야만 할 것입니다.

이 번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강력하게 항의함과 동시에 그 잘못을 한시라도 빨리 표명하여 사죄하고 주변 모든나라들과의 관계개선에 진력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.